

- 주요 뉴스: 터키,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일부 안전에서 합의 근접 영토 관련 이견은 지속
 - 모건 스탠리, 미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가능.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은 낮은 편
 - ECB 부총재, 중기 인플레이션이 일정 수준 상회하면 필요한 조치 시행
 - 영국, 공공부문 인력 감축 예상. 재정지출 축소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등이 목표
- 국제금융시장(주간): 미국은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
주가 상승[+6.2%], 달러화 약세[-0.9%], 금리 상승[+16bp]
 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연준 의장의 긍정적 경제 평가와 저가 매수 유입 등이 반영
 유로 Stoxx600 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완화 기대 등으로 5.4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예상에 부합하는 3월 FOMC 결과 등으로 매도 증가
 유로화가는 1.3% 상승, 엔화는 1.6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속적인 금리인상 전망 등이 영향
 독일은 미국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2bp 상승

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2.0% 하락, 한국 CDS 하락

		3/18일	3/11일	전주말대비			3/18일	3/11일	전주말대비
주가	미국	4,463.1	4,204.3	6.16%	국채 금리 10y	미국	2.15%	1.99%	16bp
	유럽	454.60	431.17	5.43%		독일	0.37%	0.25%	12bp
	중국	3,251.1	3,309.7	-1.77%	CDS 5y	한국	28bp	31bp	-3bp
	일본	26,827	25,163	6.62%		중국	54bp	58bp	-4bp
	한국	2,707.0	2,661.3	1.72%	위험 지표	EMBI+	539	596	-57bp
환율	달러지수	98.23	99.12	-0.90%		VIX	23.87	30.75	-22.37%
	유로화	1.1051	1.0912	1.27%		WTI유	91.59	109.33	-16.23%
	엔화	119.17	117.29	-1.58%	원자재	구리	473.1	461.6	2.48%
	위안화	6.3612	6.3393	-0.34%		금	1,921.6	1,988.5	-3.36%
	원화	1,207.6	1,232.0	2.02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- 터키,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일부 안건에서 합의 근접. 영토 관련 이견은 지속
 - 터키의 메블뤼트 차우쇼올루 외무장관은 해당 내용을 언급하고 우크라이나의 중립화, NATO 미가입 등은 의견 일치에 가까운 상태라고 발언. 반면 향후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의 지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
 - 또한 양국이 이와 같이 진전된 상황에서 후퇴하지 않는다면 휴전이 기대되며, 터키-우크라이나-러시아의 삼자회담 개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.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전 및 외교적 해결에 더욱 다가갈 것이라고 부연
 - 그러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및 주권과 관련된 문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. 아울러 언제라도 러시아와의 협상에 나설 수 있지만, 협상이 실패로 끝난다면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
 - 한편 중국 외교부 락옥성 부부장은 서방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시간이 지날수록 과도해지고 있다고 주장. 특히 제재 등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, 오히려 러시아 일반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- 모건 스탠리, 미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가능.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은 낮은 편
 - Guneet Dhingra 스트래티지스트는 '22년말 2년, 5년, 10년물 국채금리가 각각 2.75%, 2.50%, 2.40%를 기록하여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. 다만 이는 기준금리 인상의 결과이며, 경기침체의 신호는 아닐 것이라고 분석
- ECB 부총재, 중기 인플레이션이 일정 수준 상회하면 필요한 조치 시행
 - 데 쿼도스 부총재는 해당 현상이 행동의 기준이 된다고 발언.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시 유동성 병목을 겪고 있지는 않다고 진단. 또한 증시와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 확대도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평가
 -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홀츠먼 총재는 ECB가 조기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인플레이션 억제를 원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주장. 한편 일부 부채비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 지출축소 뿐 아니라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

■ ECB 이사, 유럽의 친환경 정책 강화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요인

- 슈나벨 이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어도 점차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단기간 내에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

■ 영국 정부, 공공부문 인력 축소 예상. 재정지출 축소·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등이 목표

- 수낙 재무장관은 3/23일(수) 예정된 금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공공부문 인력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. 이를 통해 팬데믹 이후 급증한 정부지출을 줄이고 금리상승 시기에 선제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에 나설 수 있기 때문
- 또한 이러한 조치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도 도움. 공공부문 인력 축소는 민간부문 노동시장의 공급 확대로 이어져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인상 및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을 제어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

■ 중국 정부,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(LGFV)에 의한 외화채권 발행 감독을 강화

- 국가외환관리국(SAFE)이 해당 조치를 지시. 이번 결정은 건전성이 취약해진 LGFV의 외화부채가 과도한 수준까지 증가했기 때문. 관계자들은 신규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만기 상환된 경우에만 외화채권 발행이 가능하다고 언급

■ 골드만삭스, 중국 부동산기업의 고수익회사채 디폴트 비율은 큰 폭 상승

- 해당 비율은 연초의 전망치(5.5%) 대비 크게 올라 최근 23.4%를 기록했으며, 이는 부동산 부문의 금융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. 다만 당국은 부동산 부문의 신용 악화를 고려하여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표명하고 있다고 진단

■ 국제에너지기구(IEA),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절감 노력이 요구

- 최근 보고서에서 석유공급 축소 상황을 대비하여 자동차 이용 축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. 비록 사무총장 역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에너지 절감 노력으로 석유공급 축소에 의한 경제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3/21 현지시각 기준)

-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 결정, 미국 시카고 연은 전미경제활동지수
- 독일 2월 생산자물가, 뉴질랜드 2월 무역수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 바이든 대통령, 주가보다 장기 경제발전에 초점 - 블룸버그

(Unlike Trump, Biden Has Stock Market Far Down His Priority List)

-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가 수준을 지지율의 척도로 삼으며 주가 등락에 민감하게 대응.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민의 복지 강화, 민주주의 동맹국가의 안보 등이 주가 움직임보다 중요한 사안임을 시사
- 다만 RBC Capital Markets의 Lori Calvasina는 금융시장이 경제전반의 우려를 반영한다면 바이든 정부도 관련 사항을 간과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.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장기 정책목표들은 궁극적으로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

■ 러시아의 자급자족 경제 강화, 생산역량 부족 등으로 난관에 봉착 - WSI

(Russia's Push for Self-Sufficient Economy Fails Before Western Sanctions)

- '14년 크림반도 점령 이후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대응하여 자급자족 경제 노선을 선택. 그러나 자국의 생산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으로 소비, 생산 부문의 대외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
- 또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의 제조업, 에너지 부문에서 생산차질 등을 초래하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전망. 중국이 새로운 공급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으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은 편

■ 우크라이나 전쟁, 유럽의 제조업과 독일경제에 가장 큰 타격 - Financial Times

(How badly has the Ukraine crisis hit European business activity?)

■ 중국 주택부문 지표의 안정, 통계적 오류 등으로 현실과 괴리가 존재할 가능성 - WSI

(China Says Housing Prices Are Stable, but Developers See Significant Declines)

■ 글로벌 원유 공급 부족, 가계 수요 둔화로 완화될 소지 - 블룸버그

(Cutting Oil Demand Would Hurt Russia and Ease a Supply Crisi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